

응급 의료 격차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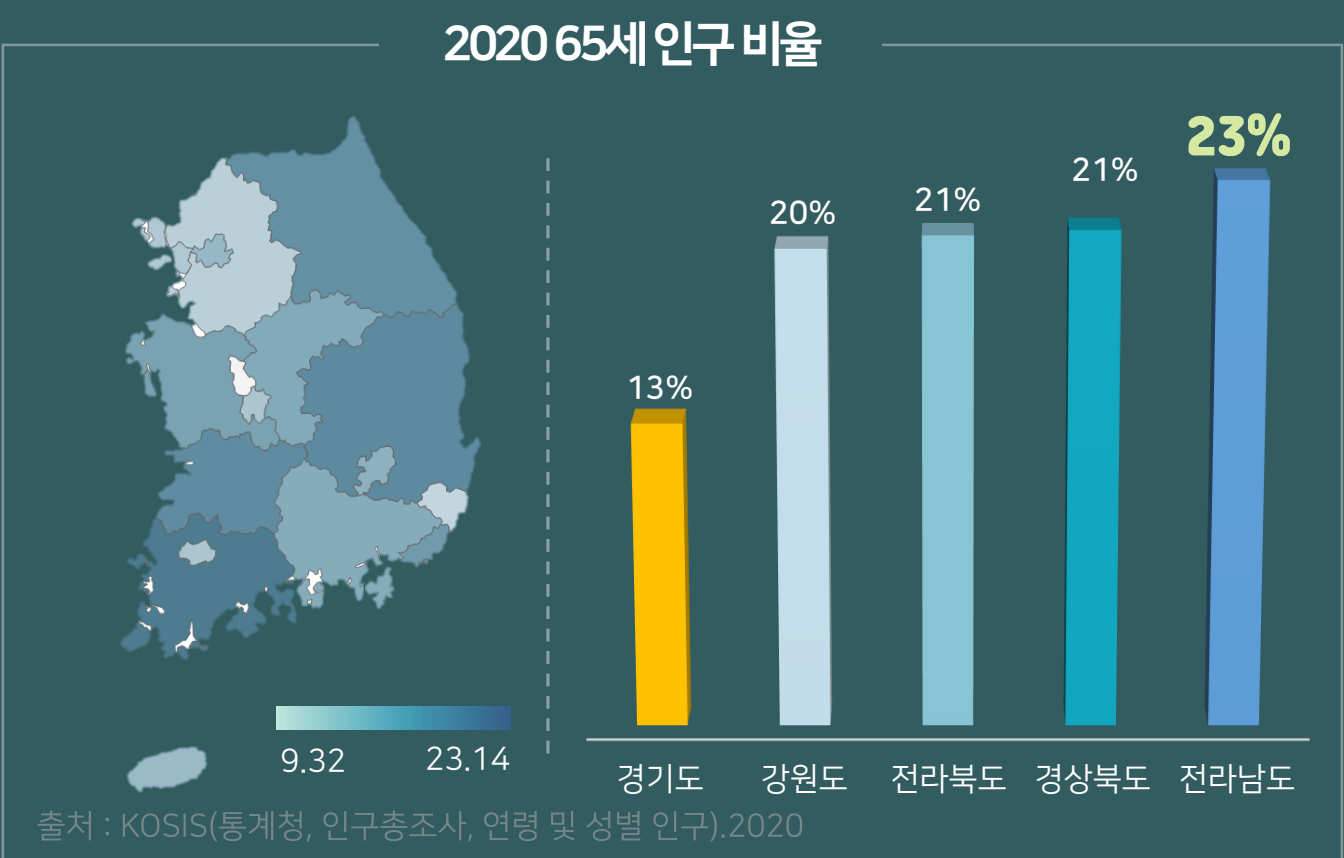


“치료 못 받고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**5년간 6899명**”

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**응급 의료 격차**의 원인으로 <고령화>와 <지역불균형>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. 특히, **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지역 간 의료 격차** 문제는 농어촌 지역민들의 **의료권을 위협**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. 이에 지난 5년 간의 통계 자료 시각화를 통해 응급 의료 격차의 현 주소를 살펴본다. 그리고 응급 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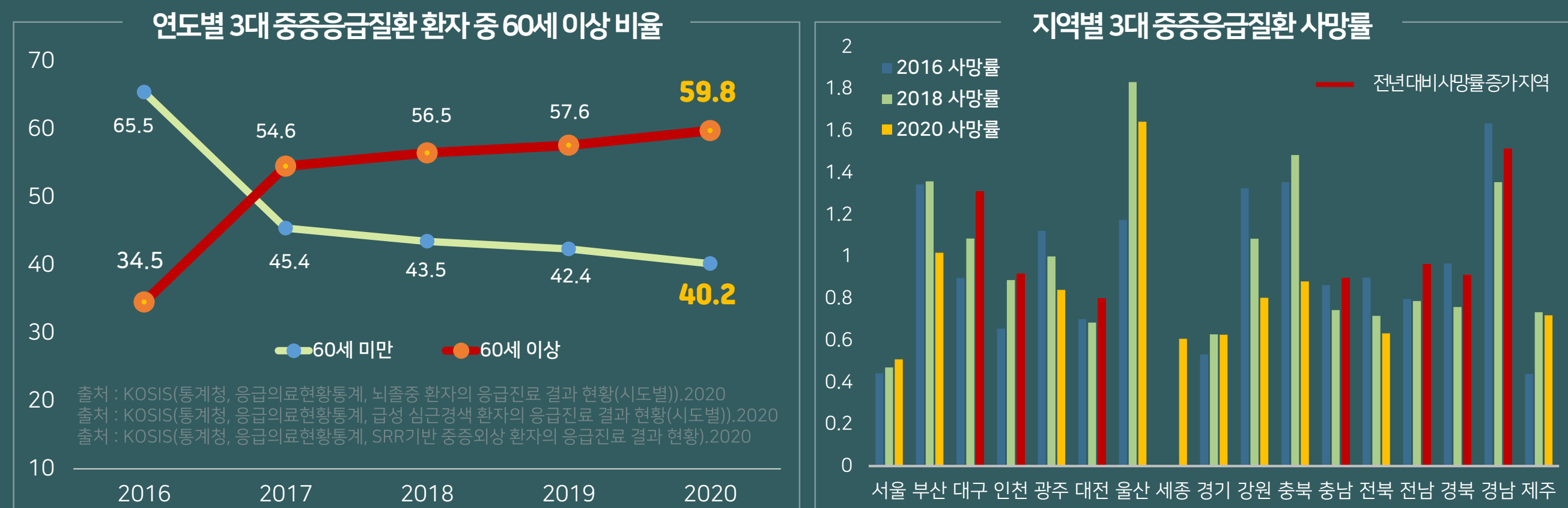
01 수도권과 비수도권 **고령화** 격차

2020년 **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**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. 전라남도 23%, 경상북도, 전라북도 21%로 서울 16%, 경기도 13%에 비해 **약 10% 이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것**을 알 수 있다.



02 3대 중증응급질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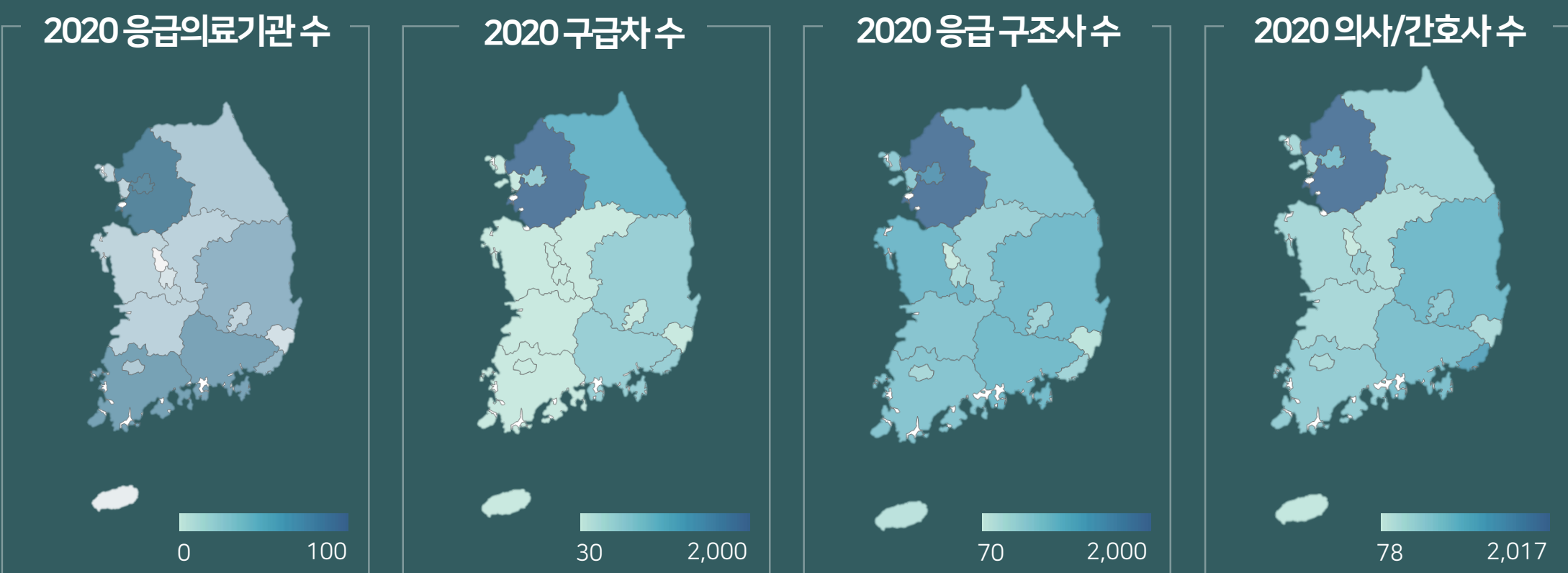
흔히 **3대 중증응급질환**으로 불리는 <심혈관질환>, <뇌혈관질환>, <중증외상> 은 발병 이후 **응급치료를 요하는 질환**들이다. 그러나 3대 중증응급질환 진료 결과를 합산한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면,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.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,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역의 '**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률**' 이 **약 2배 이상 높은 것**으로 확인됐다. 이를 통해,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의 **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**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.



03 증가하는 고령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비해 **부족한 응급의료 인프라**

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에 따르면, **3대 중증응급질환 생존 여부**에는 '**골든 타임 내 이송 여부**'와 '**전문 의료 인력**'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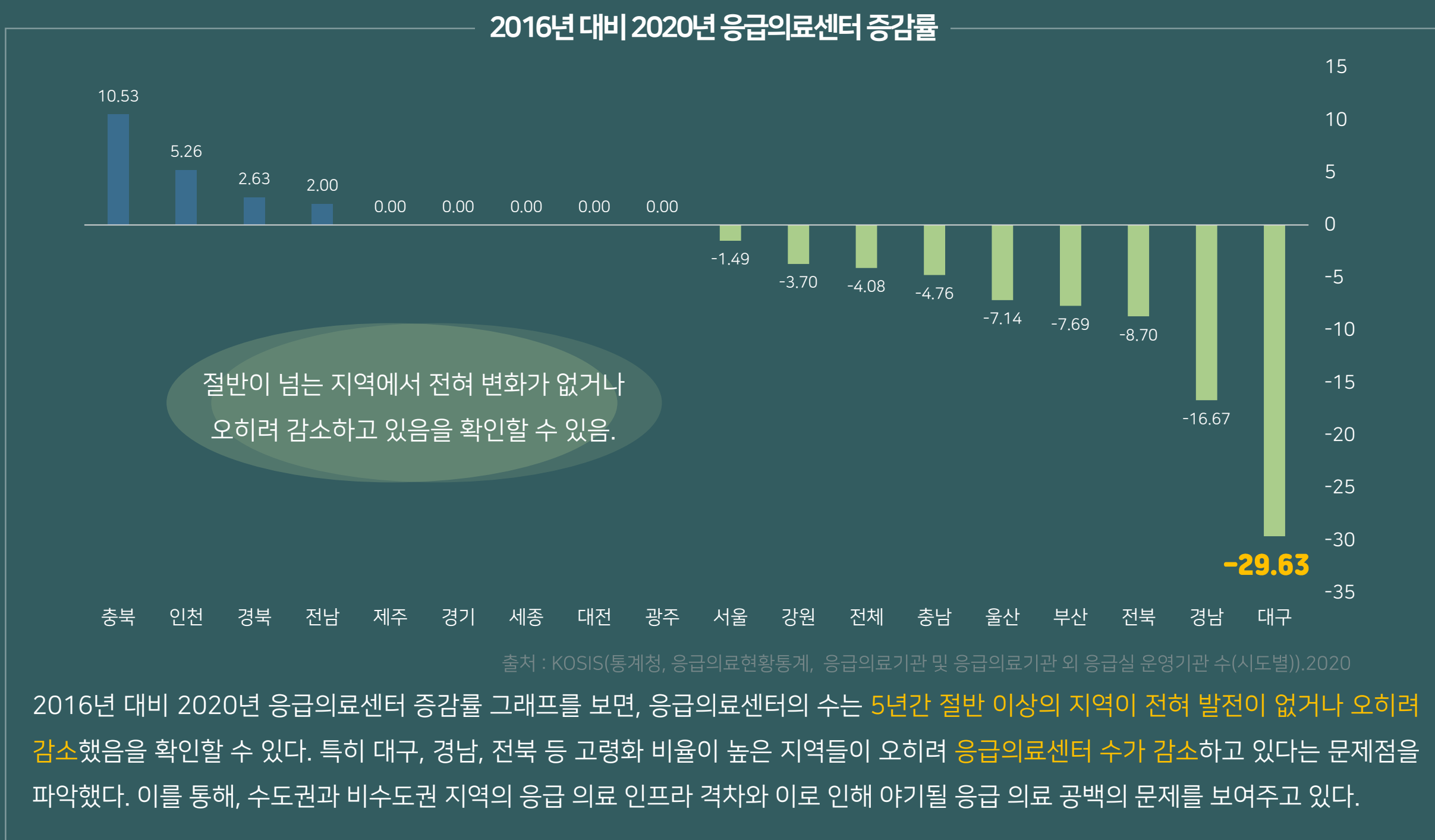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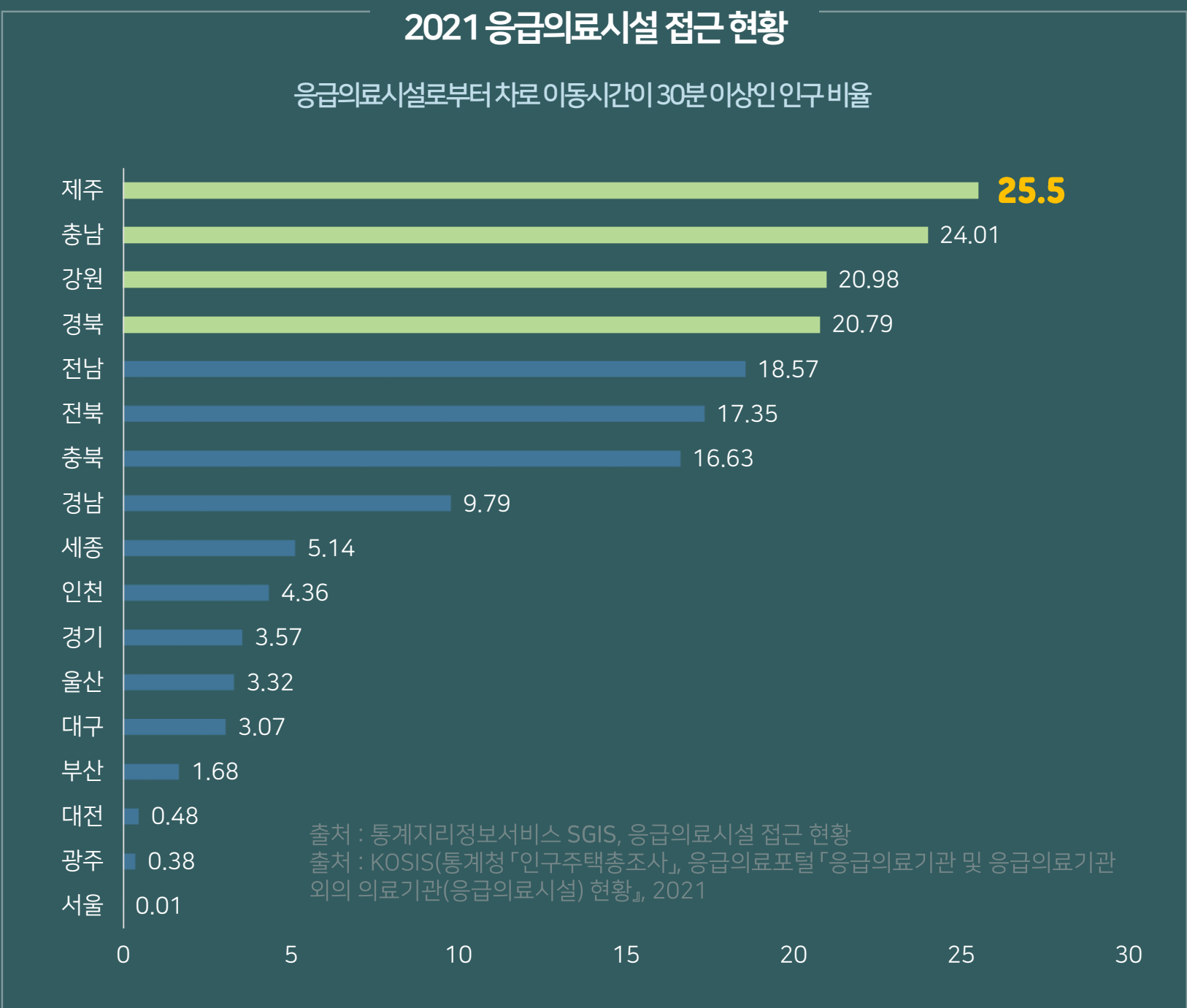
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응급 의료 인프라를 ① 응급 의료기관 수 ② 구급차 수 ③ 응급 구조사 수 ④ 응급 의료 인력 ⑤ 응급 의료시설 접근 시간 으로 정의하고,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응급 의료 인프라 격차를 살펴보았다.



- [1]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적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, 응급 의료 인프라가 충분함을 확인.
- [2] 3대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높은 비수도권의 경우, **응급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함**을 확인.
- [3] 수도권은 응급의료시설 **30분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5% 이상**으로 접근성이 우수함을 확인.
- [4] 비수도권은 응급의료시설까지 **30분 이상 걸리는 인구 비율이 20% 이상**으로 접근성이 취약함을 확인.

이를 통해, **응급 의료 인프라의 부족**이 3대 중증 응급 질환 사망률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.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**응급 의료 격차**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출처 : KOSIS(통계청, 응급의료현황통계,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수(시도별)), 2020
출처 : KOSIS(통계청, 응급의료현황통계,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(시도별)), 2020



04 시사점 및 결론

- 이번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가 존재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, 그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중증 응급 질환 치료 여건이 부족하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- 따라서, 본 분석 외 중증 응급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**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세부적으로 선별**하고, **응급의료 자원**을 적정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.
- 지역별 인구 수 및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여 '**응급 의료 인프라**' 기준을 마련하고,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보를 위해 **정부 차원의 지원**이 필요하다.
- 또한, 응급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· 구급차 · 구조 헬기 등 **응급 의료 자원**을 **추가 배치**함으로써 **중증응급질환 골든 타임 확보**에 힘써야 한다.
- 고령층 중증응급질환은 생명 · 건강과 직결된 만큼 지역 **의료 인프라를 강화**하여 **응급 의료 격차**를 **해소**해야 할 것이다. 가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 대신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응급 의료 격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타이밍이다.